

■ 프랑스의 신생아들, 기준 이상으로 다이옥신¹⁾에 노출

○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신생아들이 국제적인 권장기준보다 많은 양의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지난 주에 발간됨

- 프랑스의 국립환경연구소, 식품안전청, 보건기구 등이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체중 1 kg당 83.6 pg²⁾의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WHO³⁾에서는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을 체중 1 kg당 4 p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향후 1 pg/kg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많은 양임
- 그렇지만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3~4개월 이하의 영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7개월 정도 유아들은 20 pg/kg 정도로 낮았으며 13~18개월 사이의 유아들의 다이옥신 섭취량은 WHO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프랑스 성인들의 경우에는 다이옥신 섭취량이 하루 평균 1.3 pg/kg 수준에 불과하다고 함

- 또한 시판 우유를 먹는 아기들 역시 다이옥신 섭취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이 저감되었기 때문임

- 프랑스에서는 2년 전에 프랑스산 소고기에서 높은 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에 뒤이어 지역에서 사육 중인 젖소의 우유 안에 다이옥신이 많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도미니크 부와이네 환경부 장관의 명령으로 3개의 도시쓰레기 소각로를 즉각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 하지만 여전히 다이옥신에 상당한 수준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연구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은 엄마의 식습관, 흡연, 주거 환경 등에 따라 모유에 함유된 다이옥신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유독 모유를 수유하는 신생아들만 많은 양의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되는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어 불안을 고조시킴

1) 폐기물 소각로의 연소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유독 염소화합물로서 지난 달, 이미 미국 EPA는 다이옥신의 건강위해도를 이전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상향조정한 바 있음

2) pico gram의 약어로서 10^{-12} 즉, 0.000000001 mg을 나타내는 極微量 단위임

3)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으로서 국제보건기구를 이룸